

국내외 언론이 전한 최신 당뇨병소식

코코아 당뇨 · 심장병에 효과



‘코코아를 많이 먹으면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에 좋다.’ 코코아에 포함된 성분이 당뇨병과 심장 및 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

(FT)가 보도했다.

세계적인 사탕과자 제조업체인 마스는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플라바놀(flavanols)’로 알려진 코코아의 성분을 복제하는 방법을 발견했다며 제약사들이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새로운 등급의 신약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5년간 하버드대 UC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코코아 플라바놀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신물질을 추출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이번에 당뇨병과 심장 및 혈관질환을 치료하는 물질을 발견해 결실을 맺었다.

마스는 이미 한 유명 제약회사와 이 ‘합성 플라바놀’ 물질의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코코아뿐 아니라 녹차, 적포도주, 토마토 등에 들어있는 플라바놀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질병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으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플라바놀

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효능이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마스의 헤럴드 슈미츠 최고경영자(CEO)는 “정말 운 좋게 신약물질을 발견했다”며 “신물질은 음식뿐 아니라 의약 부문에서도 막대한 회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버드 의대의 늬홀렌버그 교수는 “코코아 플라바놀의 효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이는 의학 분야에서 신기원을 이뤄줄 어마어마한 과학적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마스는 코코아에서 생기는 천연 플라바놀 물질을 대량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 FT는 이번 발견에 대해 ‘현재 많은 대형 제약사가 기존 제품의 특허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대박을 터뜨려줄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나온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지적했다.

마스는 지난 60년대 코코아 농장이 질병에 취약해지자 질병에 내성이 있는 코코아 연구에 착수했으며 이 연구과정에서 마스의 과학자들은 혈압을 완화시켜 순환계 및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코코아 플라바놀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 플라바놀은 아스피린만큼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좋은 약효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증질환 ‘이중당뇨병’ 출현

제 1형과 제 2형 당뇨병 증세가 혼합된 ‘이중당뇨병’이라는 신증질환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특히 아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제 1형 당뇨병으로 인슐린 주사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들이 체중이 불어 인슐린 투여량이 점점 늘면서 제 2형 당뇨병의 특징인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아동병원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 도로시 베켈 박사는 제 1형 당뇨병 아이들의 약 25%가 과체중으로 제 2형 당뇨병 증세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예로는 전형적인 제 2형 당뇨병 환자가 치료가 잘 듣지 않아 인슐린 의존이 높아지면서 제 1형 당뇨병 특징을 함께 지니게 되는 경우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의과대학 소아내분비내과 전문의 프랜신 카우프먼 박사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제 1형 당뇨병 증세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이런 환자는 제 1형 당뇨병인지 제 2형 당뇨병인지 구분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당뇨병 전문의들은 이러한 이중당뇨병을 “비정상 당뇨병”, “1.5형 당뇨병” 심지어는 “제 3형 당뇨병”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당뇨병이 진단도 쉽지 않지만 치료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당뇨병이란 우리 몸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혈당 즉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 할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제 1형과 제 2형 당뇨병으로 나뉘어 진다.

제 1형 당뇨병은 면역체계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외부침입자로 오인, 공격함으로써 발생하며 보통은 갑자기 증세가 나타

난다.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 소아당뇨병으로 불리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제 2형 당뇨병은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넉넉히 생산해도 우리 몸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상실할 때 나타난다. 서서히 발생하고 주로 중년에 나타나 성인당뇨병으로 불리지만 과체중 아이들도 걸릴 수 있다.

1.2형 당뇨병 모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치적인 합병증인 심장병, 신장병, 실명, 족부궤양에 의한 다리절단에 이를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환자 70% 고혈당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당뇨병 유병률도 높아 철저한 당뇨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최경목·백세현 교수팀은 당뇨병 병력이 없고 혈당이 높지 않은 30명(평균 58.4세)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시와 퇴원 후 3개월째에 ‘경구당부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0% 가량이 고혈당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중 40.4%는 퇴원시 ‘내당능장애’, 33.3%는 ‘당뇨’에 해당됐다.

당뇨병 전 단계를 뜻하는 내당능장애는 식사 2시간 후의 혈당치가 140~200mg/dL이며, 식사 2시간 후의 혈당치가 200mg/dL를 넘어서면 당뇨병으로 진단된다. 퇴원 후 3개월째에도 이같은 상태는 계속돼 36.7%의 환자가 내당능장애, 30%가 당뇨병으로 진단됐다.

당뇨로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빨리 망가져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오기 쉽다. 실제로 당뇨병환자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는 일반인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